

강원 지역 학교 급식 영양사의 근무 년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노미아 · 김지상 · 이영순*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및 생활과학 연구소

A Study on the Job Stress Factors according to the Working Years of School Food Service Nutritionists in Gangwon Area

Mi-ah Noh, Ji-Sang Kim, Young-Soon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job stress factors of school food service nutritionis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they have worked. The subjects of this survey included 125 nutritionists (69 from full-time employees and 56 from part-time nutritionists) fro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the Gangwon area. The results showed that stress related to duty was the top job stress factor, followed by environment-related stress, personal stress, organization-related stress and stress caused by human relations. In terms of the degree of stress, part-time nutritionists have more stress compared to full-time nutritionists. This was especially true for nutritionists that had been employed for one year. In this case, the degree of stress was much higher than long time employed nutritionists. In terms of how to deal with job stress, school nutritionists eliminated stress directly (with direct countermeasures). In order to deal with stress, workers expected stable employment such as pay (wages), promotions, etc. In particular, part-time school nutritionists had stronger expectations. When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factors were examined, environment-related, duty-related, organization-related, human relations-related and personal stress were all shown to be mutually related.

Key Words: Job stress factors, working years, school food service nutritionists

1. 서 론

조직구성원들은 직무환경과 직무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는 개인과 조직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Song & Kim 2002).

Gibson 등(1982)은 직무 스트레스란 “역할과다에서 오는 갈등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자 자신의 내적 갈등, 직무수행상, 역할 무능력, 역할 마찰 등의 요인에서 오는 직무 수행시의 고민 또는 불균형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학교급식은 영양적, 위생적인 급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급식하는 학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음식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Kang & Kim 1995). 이러한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실무 담당자인 영양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서의 영양사의 비중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대한영양사회 1996).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직업표준분류(ISCO)에서 정의된 일반 영양사의 역할은 ‘병원이나 기관에서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한 치료식 및 기타 식사를 계획·감독하며, 영양교육프로그램 및 영양 재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영양문제 및 보건 프로그램의 영양적 측면에 대한 조언과 함께 영양프로그램의 계획 및 조정 참여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사는 전문인으로서 급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영양사가 좋은 직무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직무에 만족할 때 작업능률이 향상되고 학교급식의 질도 향상되는 것이다(Park 1999).

그러나 학교급식 환경은 나날이 빠르게 변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식단 작성의 기준만 해도 영양과 기호 뿐 만 아니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식중독의 발생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급식 예산 절감 등 고려해야 할 원칙이 더욱 까다로워지

*Corresponding author: Lee Young S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oo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263 Fax: +82-2-961-0261 E-mail: yyslee@hanmail.net

고 있다(Kwon 1999). 학교 영양사가 학교 급식의 막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조직 체계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제반 여건이 개선되어야 영양사로서의 긍지와 만족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Hwang 2005). 교육인적자원부(2007)에 의하면 학교급식의 전체영양사 중 63.1%가 정규직영양사이고, 36.9%가 비정규직 영양사로 보고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단체급식에 있어서 영양사는 급식 경영인으로 서비스 산업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직업윤리에 사명감이 있는 전문인으로 급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영양사가 단체 급식의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영양사가 좋은 직무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직무에 만족할 때만이 작업능률의 향상을 통하여 양적 측면은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Smith 1964)고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는 김창순(2000)의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연구', Park(2004)의 '학교도서관 사서의 직무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 Jeoung (2004)의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Choi(2005)의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 Kim(2005)의 '분장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Kim(2005)의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Kang(2001) 등의 '일부 의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등이 있지만 학교급식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근무년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학교급식의 만족도와 영양사의 직무 수행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느끼고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점을 알아보고,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수행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초, 중, 고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2007년 9월 한달간 임의 표집하여 정규직 90명, 비정규직 75명 총 1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직접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부한 165부의 설문지중 불완전한 응답 및 신뢰성이 부족한 설문지, 통계처리에 이용하기 부적절한 설문지와 회수되지 못한 부수를 제외한 125부(75.8%) 중 정규직 69부(55.2%), 비정규직 56부(44.8%)를 통계 분석 대상으로 이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초, 중, 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문헌(Park 2004; Kim 2005; 이 1995) 및 선행연구를 참고로 개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영양사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사항과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근무년수, 학력, 고용형태, 근무처, 급식형태, 급식인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해서는 환경관련 스트레스 요인(영양사실의 시설, 물리적 요건, 복리후생제도, 고용형태, 출퇴근 문제 등 8개의 문항으로)과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적성, 성취감, 업무의 한계, 업무의 양, 근무시간, 업무 처리에 대한 갈등, 업무의 권한 권한 등 19개의 문항으로), 조직관련 스트레스 요인(조직 분위기,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의사결정, 상급자의 강압성, 행정실의 간섭, 건의 및 의견 반영, 소속감, 조리원들과의 관계 등 조직구조 및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8개 문항으로),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상급자, 동료교사, 학부모, 행정실, 조리원 등과의 인간관계, 학생, 학부모로 인한 갈등 요인 등 8개 문항으로), 개인관련 스트레스(개인의 능력, 건강문제, 가사 및 육아 문제, 여가시간, 성차별 문제, 영양교사화에 따른 문제) 등 6개 문항으로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자료의 처리는 SPSS PC package program(ver. 12.0)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각문항의 응답률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관련 문항들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적일관성 계수, 즉 Cronbach's의 Alpha계수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Likert 척도에 의한 설문된 문항에 대해서는 5단계로 점수화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근무년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근무년수에 따른 개인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χ^2 -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환경관련 스트레스, 직무관련 스트레스, 조직관련 스트레스, 인간관련 스트레스, 개인관련 스트레스에 관하여 Pearson's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스트레스요인별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를 알아보았으며 집단 간 유의수준은 $p < 0.001$, $p < 0.01$, $p < 0.05$ 에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명(0.8%), 여성이 124명(99.2%)으로 거의 전체적으로 여성이 학교급식 영양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21~25세가 4명(3.2%), 26~30세가 21명(16.8%), 31~40세가 63명(50.4%), 41~50세가 37명(29.6%)으로 31~40세 경우 65명(50.4%)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과 Kim(2009)의 연구에서도 영양사의 연령은 30~40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34명(27.2%), 기혼이 91명(72.8%)으로 기혼인 영양사가 많았고 대전 및 충남 지역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Ko HS 2002)보다는 평균 연령과 기혼이 모두 높아진 상태로 결혼 후 근무하는 영양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무년수는 1년 미만이 6명(4.8%), 1~5년 미만이 23명(18.4%), 5~10년 미만이 34명(27.2%), 10~15년 미만이 35명(28%), 15년 이상이 27명(21.6%)으로 나타났으며 5~10년 미만과 10~15년 미만이 거의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학력은 학사편입과 대졸을 합쳐 71명(56.8%), 대학원 재학이상이 32명(25.6%), 전문대졸이 22명(17.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Jang와 Kim(2003)의 강원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인 전문대졸이 53.8%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급식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라 자격이 갖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69명(55.2%) 비정규직 56명(44.8%)이고 근무처는 초등학교 65명(52%), 중학교 27명(21.6%), 고등학교 27명(21.6%), 기숙사가 있는 3끼를 급식하는 학교는 6명(4.8%)으로 나타났다. 급식형태를 보면 123명(98.4%) 이상이 직영 급식을 하였고, 2명(1.6%)만 위탁급식을 하고 있었으며, 급식인원을 보면 400명 이하 39명(31.2%), 401~800명 미만 29명(23.2%), 800~1200명 미만 35명(28.0%), 1200~1500명 미만 16명(12.8%), 1500명 이상이 6명(4.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Alpha값으로 신뢰성을 검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Alpha값이 0.70 이상이면 강한 신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0.30 이하이면 신뢰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통계학회 198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신뢰도 분석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Cronbach' Alpha계수는 환경관련 스트레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5)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1(0.8)
	Female	124(99.2)
Age	21-25	4(3.2)
	26-30	21(16.8)
	31-40	63(50.4)
	41-50	37(29.6)
	≥50	0(0.0)
Marital status	Single	34(27.2)
	Married	91(72.8)
Working years	Under 1	6(4.8)
	1-5 or less	23(18.4)
	5-10 or less	34(27.2)
	10-15 or less	35(28.0)
	15 or more	27(21.6)
Education status	College degree	22(17.6)
	College degree+university degree	30(24.0)
	University degree	41(32.8)
	Graduate school student	20(16.0)
	Masters degree	12(9.6)
Employment	Full time	69(55.2)
	Part time	56(44.8)
Job position	Elementary	65(52.0)
	Middle school	27(21.6)
	High school(1 meal service)	27(21.6)
	High school(3 meal service)	6(4.8)
Meal service style	directly	123(98.4)
	consignment	2(1.6)
Meal service person's	Under 400	39(31.2)
	Under 401-800	29(23.2)
	Under 800-1200	35(28.0)
	Under 1200-1500	16(12.8)
	≥1500	6(4.8)

요인 0.67, 직무관련 스트레스요인 0.87, 조직관련 스트레스 요인 0.86, 인간관련 스트레스요인 0.87, 개인관련 스트레스요인 0.63으로 평균 0.78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영역의 문항별 분석

학교급식영양사가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고자 직무 스트레스의 전체 및 하위요인별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Table 7>에 의하면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2.98(표준편차 0.63)로 나타났다. 이는 Hwang(2005) 대구지역 초등학교 영양사 직무 스트레스 평균 평점 3.12±0.47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Kim(2005)의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평균 평점 2.41±0.74와 Jeoung(2004)13)의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평점 2.75±0.85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직무관련 스트레스가 평균 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환경관련 스트레스가 평균 3.25, 개인관련 스트레스가 2.95, 조직관련 스트레스가 2.62, 인간관련 스트레스가 2.41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Table 2> The extend of stress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related to job

Low level factors	Number of question	M±SD	Ranking
Enviroment	8	3.25±0.64	2
Job	19	3.66±0.52	1
Organization	8	2.62±0.71	4
Human	8	2.41±0.67	5
Personal	6	2.95±0.61	3
Total	49	2.98±0.63	

¹⁾Mean±SD.

²⁾5-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도서관 사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정도를 조사한 Park(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의 문항별 분석

학교급식 영양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살펴 보고자 직무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전체 및 하위요인별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선배, 동료 영양사나 친구들과 대화한다’는 방법이 평균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식 영양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 2순위로는 ‘친구와 대화한다’가 3.79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가 평균 3.52로 나타났으며 4순위로는 ‘잠을 잔다’가 평균 3.48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5 순위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로 평균 3.4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의 대처 방안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선배나 동료 영양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불만을 털어놓거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등 주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wang (2005)의 사서교사의 항목별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적극적 대처방법이 높은 순위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5. 근무년수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분석

1) 근무년수에 따른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분석

학교급식 영양사의 근무년수에 따른 개인적 특성을 살펴 보면 <Table 4>과 같다.

연령, 결혼여부, 학력, 고용형태, 근무처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이외의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을 근무년수로 살펴보면 경력이 5년 미만의 경우 전문대졸은 9명(31.0%), 전문대+학사편입 11명(37.9%), 대졸 2명(6.9%), 대학원재학 6명(20.7%), 석사이상 1명(3.4%)로 나타났으며, 5~10년 미만은 전문대졸 5명(14.7%), 전문대+학사편입 8명(23.5%), 대졸 8명(23.5%), 대학원재학 10명(29.4%), 석사이상 3명(8.8%)로 나타났다. 10~15년 미만에서는 전문대졸이 4명(11.4%), 전문대+학사편입 4명(11.4%), 대졸 19명(29.4%), 대학원 재학 3명(8.6%), 석사 이상 5명(14.3%)로 나타났으며 15년 이상에서는 전문대졸이 4명(14.8%), 전문대+학사편입 7명(25.9%), 대졸 12명(44.4%), 대학원 재학 1명(3.7%), 석사이상 3명(2.4%)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는 근무년수가 5년 미만은 정규직 2명(6.9%), 비정규직 27명(93.1%), 5~10년 미만은 정규직 12명(35.3%), 비정규직 22명(64.7%), 10~15년 미만은 정규직 30명(85.7%), 비정규직 5명(14.3%), 15년 이상은 정규직 25명(92.6%), 비정규직 2명(7.4%)로 나타났다. 근무년수가 10년 미만일 경우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일 때는 정규직 영양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근무년수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는 대상자의 연령, 결혼 유무, 근무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 근무년수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근무년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면 <Table 5>과 같다. 인간, 조직, 환경적관련에서는 스트레스가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P<0.001), 특히 조직관련 항목에서는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 항목 경우 근무년수에 관계없이 보통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관련항목에서는 5-10년미만이 3.16, 10-15년 미만 2.96, 5년미만 2.93, 15년 이상 2.72순으로 나타나 근무년수와 개인관련에서는 유의적으로 나타나 근무시작과 어느정도 근무한 경우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년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5년 미만이 3.19로 스트

<Table 3> The rank of handling method of job stress

Ranking	Low level factors	Number of question	M±SD ¹⁾
1	Direct	Complain and ask advice of a senior and co-worker	3.84±0.85 ²⁾
2	Direct	Have a heart-to-heart with a friend	3.79±0.83
3	Direct	Clarify the cause and find solution	3.52±0.80
4	Physical	Sleeping	3.48±1.02
5	Psychological	Cope with the situation affirmatively	3.46±0.76

¹⁾Mean±SD.

²⁾5-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year of working

N(%)

Characteristics	Category	≤5 years	≤5-10 years	≤10-15 years	≥15 years	Total	χ ²
		N=29	N=34	N=35	N=27	N=125	
Sex	Male	0(0)	1(2.9)	0(0)	0(0)	1(0.8)	df=3 χ ² =2.698 p=0.441
	Female	29(100)	33(97.1)	35(100)	27(100)	124(99.2)	
Age	21-30	19(65.5)	6(17.2)	0(0)	0(0)	25(20.0)	df=6 χ ² =113.834*** p=0.000
	31-40	5(17.2)	22(64.7)	33(94.3)	3(11.1)	63(50.4)	
	41-50	5(17.2)	6(17.6)	2(5.7)	24(88.9)	37(29.6)	
	≥50	0(0)	0(0)	0(0)	0(0)	0(0)	
Marital status	Single	19(65.5)	9(26.5)	4(11.4)	2(7.4)	34(27.2)	df=3 χ ² =31.250*** p=0.000
	Married	10(34.5)	25(73.5)	31(88.6)	25(92.6)	91(72.8)	
Education status	College degree	9(31.0)	5(14.7)	4(11.4)	4(14.8)	22(17.6)	df=12 χ ² =31.581** p=0.002
	College degree+university degree	11(37.9)	8(23.5)	4(11.4)	7(25.9)	30(24.0)	
	University degree	2(6.9)	8(23.5)	19(54.3)	12(44.4)	41(32.8)	
	Graduate school student	6(20.7)	10(29.4)	3(8.6)	1(3.7)	20(16.0)	
	Masters degree	1(3.4)	3(8.8)	5(14.3)	3(2.4)	12(9.6)	
Employment	Full time	2(6.9)	12(35.3)	30(85.7)	25(92.6)	69(55.2)	df=3 χ ² =61.253*** p=0.000
	Part time	27(93.1)	22(64.7)	5(14.3)	2(7.4)	56(44.8)	
Job position	Elementary	3(10.3)	9(26.5)	30(85.7)	23(85.2)	65(52.0)	df=9 χ ² =62.312*** p=0.000
	Middle school	12(41.4)	9(26.5)	4(11.4)	2(7.4)	27(21.6)	
	High school (1 meal service)	13(44.8)	12(35.3)	1(2.9)	1(3.7)	27(21.6)	
	High school (3 meal service)	1(3.4)	4(3.2)	0(0)	1(3.7)	6(4.8)	
Meal service style	directly	28(96.6)	33(97.1)	35(100)	27(100)	123(98.4)	df=3 χ ² =2.026 p=0.567
	consignment	1(3.4)	1(2.9)	0(0)	0(0)	2(1.6)	
Meal service person's	Under 400	9(31.0)	15(44.1)	10(28.6)	5(18.5)	39(31.2)	df=12 χ ² =17.986 p=0.116
	Under 401-800	6(20.7)	6(17.6)	12(34.3)	5(18.5)	29(23.2)	
	Under 800-1200	12(41.4)	7(20.6)	8(22.9)	8(29.6)	35(28.0)	
	Under 1200-1500	2(6.9)	5(14.7)	4(11.4)	5(18.5)	16(12.8)	
	≥1500	0(0)	1(2.9)	1(2.9)	4(14.8)	6(4.8)	

*p<0.05, **p<0.01, ***p<0.001

<Table 5> Job stress according to the year of working

	≤5 years	≤5-10 years	≤10-15 years	≥15 years	Average	F-value
	N=29	N=34	N=35	N=27	N=125	
Enviroment	3.52±0.50 ^{1,2)}	3.46±0.53	3.04±0.60	2.97±0.75	3.25±0.64	6.918***
Job	3.80±0.36	3.67±0.51	3.60±0.58	3.55±0.56	3.66±0.52	1.270
Organization	2.99±0.56	2.78±0.69	2.65±0.64	1.97±0.52	2.62±0.71	14.578***
Human	2.70±0.50	2.53±0.79	2.38±0.53	1.99±0.62	2.41±0.67	6.705***
Personal	2.93±0.53	3.16±0.62	2.96±0.61	2.72±0.63	2.95±0.61	2.727*
Total	3.19±0.35	3.12±0.49	2.92±0.46	2.64±0.43	2.98±0.48	8.894

¹⁾Mean±SD.

²⁾5-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p<0.05, ***p<0.001

레스가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은 3.12로 그 다음이 10~15년 미만으로 2.96, 15년 이상이 2.72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Jeoung(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저경력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Kim(2005)의 국립유치원 특수학급 교사의 경력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무년수에 따른 환경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환경관련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6>와 같다. 인력관리시스템의 문항에서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사이드에서는 근무년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영양사가 전문직으로서 급여가 심히 미흡한 경우'와 '현재의 급여는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

<Table 6> Environment stress according to the year of working

	≤5 years	≤5-10 years	≤10-15 years	≥15 years	Average	F-value
	N=29	N=34	N=35	N=27	N=125	
Work environment	2.83±1.14 ^{1,2)}	3.26±0.86	3.09±1.12	2.85±1.23	3.02±1.09	1.135
Salary	4.03±0.94	3.94±0.85	3.37±0.88	3.04±1.16	3.61±1.02	7.265***
Financial stability of salary	3.86±0.88	3.82±1.00	2.94±0.91	2.70±1.14	3.34±1.09	11.241***
Unstable employment type	3.93±1.00	3.50±1.33	2.26±1.25	2.22±1.45	2.98±1.46	14.411***
Decrease in working motivation	3.76±1.15	3.85±1.05	3.14±1.06	3.74±1.06	3.61±1.16	3.073*
Personnel shifts	3.21±1.11	3.38±1.13	3.63±0.88	3.67±1.21	3.47±1.08	1.200
Human Relations system	3.72±0.80	3.47±1.24	3.23±1.09	3.19±1.08	3.40±1.08	1.599
Problems of commute	2.83±1.20	2.44±1.11	2.66±1.11	2.33±1.21	2.57±1.15	1.073

¹⁾Mean±SD.

²⁾5-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p<0.05, ***p<0.001

<Table 7> Job stress according to the year of working

	≤5 years	≤5-10 years	≤10-15 years	≥15 years	Average	F
	N=29	N=34	N=35	N=27	N=125	
Aptitude	2.76±0.74	2.76±0.74	2.83±0.99	2.44±0.70	2.73±0.89	1.204
Satisfaction and accomplishment	3.10±0.72	3.09±0.90	2.69±1.11	2.85±0.95	2.93±0.94	1.508
Burden on workload	3.62±0.82	3.59±1.02	3.46±1.07	3.81±0.96	3.61±0.98	0.686
Complaint about working hours by inspection	3.17±0.89	3.09±1.00	3.11±1.05	3.41±1.05	3.18±1.00	0.611
Non-desired task & private matters	3.66±0.97	3.44±0.96	3.29±0.99	3.04±1.16	3.36±1.03	1.858
Rights to the work	4.17±0.81	3.94±0.95	3.74±1.04	3.26±1.23	3.79±1.05	4.135**
Complaint about people without school meals	4.14±0.92	3.79±1.04	3.63±1.19	3.44±1.25	3.75±1.12	2.037
Stress of foreign substances	4.38±0.68	4.38±0.65	4.34±0.94	4.22±0.58	4.34±0.73	0.295
Burden on menu development	3.93±0.80	3.74±0.96	3.89±0.87	4.07±0.73	3.90±0.85	0.814
HACCP Training and inspection for cooking employees	3.83±0.89	3.38±0.99	3.49±0.74	3.04±1.02	3.44±0.94	3.605*
Situations of food poisoning	4.48±0.57	4.47±0.83	4.51±0.56	4.37±0.69	4.46±0.67	0.248
Nutrition training	3.69±0.97	3.65±1.07	3.54±1.01	3.56±1.19	3.61±1.05	0.139
Nutrition counseling	3.76±1.02	3.68±0.98	3.57±1.17	3.70±1.14	3.67±1.07	0.172
Lack of side dishes during the meal	4.41±0.63	4.26±0.83	4.14±0.88	4.07±0.73	4.22±0.78	1.059
Recipe	4.31±0.66	4.29±1.00	4.26±0.61	4.26±0.45	4.28±0.71	0.040
Inspection for insanity and safety	4.31±0.71	4.15±0.99	3.89±1.05	3.96±0.76	4.07±0.91	1.375
Inspection of a school meal's materials	4.03±0.87	3.53±1.05	3.77±0.84	3.67±0.92	3.74±0.93	1.635
Menu list according to food cost	3.48±1.06	3.59±0.99	3.63±0.94	3.59±0.89	3.58±0.96	0.128
Special food for the faculty	2.93±1.25	2.85±1.31	2.71±1.20	2.63±1.12	2.78±1.22	0.356

¹⁾Mean±SD.

²⁾5-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p<0.05, **p<0.01, ***p<0.001

하고 있다', '고용형태에 불안을 느낀다', '근무의욕이 저하된다'는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급여와 현 급여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형태불안에서는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비정규직이 많아 현재 급여가 적어 경제적 안정이 안 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여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또한 이로 인해 근무의욕도 저하되어 지는 것으로 사려 된다. 급여의 경우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등학교 영양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으로 보고하였고(김혜경 2007), Choi 등(2009)은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직무스트레스에 직무불안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와 일치하였다.

4) 근무년수에 따른 직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학교급식 영양사의 근무년수에 따른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Table 7>. 근무년수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로는 식중독으로 나타났다. 식중독은 경력이 짧던지 길던지 상관없이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현재의 직무 적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모든 근무년수에서 비슷한 점수로 평균 2.73점을 나타냈다. 현재의 직무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근무년수로는 5년 미만(평균 3.10 점)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의 양에 대한 부담감은 근무년수에 상관없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Table 8> Organization stress according to the year of working

	≤5 years	≤5-10 years	≤10-15 years	≥15 years	Average	F-value
	N=29	N=34	N=35	N=27	N=125 ¹⁾	
School atmosphere	2.79±0.73 ²⁾	3.03±0.83	2.89±1.13	2.33±0.88	2.78±0.94	3.145*
Recognition of my task in the school	3.34±0.90	2.97±1.09	2.71±0.96	2.22±1.12	2.82±1.08	6.049**
Exchange of school nutritionists	2.90±0.98	2.62±1.07	2.86±0.85	1.85±0.66	2.58±0.99	8.016***
Opportunity for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3.28±1.00	2.97±0.90	2.80±0.96	2.07±0.92	2.80±1.02	8.119***
Problems of information sharing and of communication with school staffs	3.00±1.00	2.74±0.86	2.51±0.98	1.89±0.75	2.55±0.98	7.615***
Superiors' unilateral direction and intervention	3.03±0.98	2.74±1.00	2.83±1.07	1.78±0.70	2.62±1.05	9.467***
Belongingness about the current school	3.28±0.88	2.94±1.01	2.54±0.85	1.89±0.64	2.68±0.99	13.369***
Relations with cooks	2.31±0.85	2.24±0.86	2.03±0.75	1.70±0.67	2.08±0.81	3.378**

¹⁾Mean±SD.

²⁾5-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p<0.05, **p<0.01, ***p<0.001

‘원하지 않는 업무, 또는 업무 외적인 일 수행으로 힘들 때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5년 미만은 평균 3.66점, 5~10년 미만 평균 3.44, 10~15년 미만은 3.29, 15년 이상은 평균 3.04로 경력이 짧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책임이 큰 것에 비해서 권한은 갖지 못한다’에 대한 문항에서는 5년 미만은 평균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0년 미만은 평균 3.94, 10~15년 미만은 평균 3.74, 15년 이상은 평균 3.26으로 유의적 차이(p<0.01)를 나타냈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HACCP 교육 및 감독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근무년수에 따른 유의적 차이(p<0.05)가 나타났다.

이것은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업무에 대한 권한을 상사로부터 간섭 받는 경우가 있고 또한 업무에 대한 미숙과 경륜에서 오는 노하우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경력이 많은 영양사들의 도움과 자문을 구해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5) 근무년수에 따른 조직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분석
조직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를 <Table 8>과 같다. 조직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나의 직위가 학교 내에서 중요한 직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항에서는 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34, 5~10년 미만에서는 2.97, 10~15년 미만 2.71, 15년 이상은 2.22로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학교에서 자신에 대한 직무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나타났다(p<0.01).

‘학교 영양사들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다’에서는 5년 미만은 평균 2.90, 5~10년 미만은 평균 2.62, 10~15년 미만은 2.71, 15년 이상은 2.22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비정규직이 많으므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학교 영양사들의 교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

규직일 경우는 매월 교육청에서 월례회의를 열어 정기적 교육과 영양사들의 교류가 활발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가 어려워 많은 영양사들과 교류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생각되어진다(p<0.001).

‘학교에서 건의나 불만이 잘 반영되지 않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은 평균 3.28, 5~10년 미만 평균 2.97, 10~15년 미만은 평균 2.80, 15년 이상은 2.07순으로 나타났으며(p<0.001), 상사의 일방적 지시나 간섭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문항에서는 평균 2.62점으로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평균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의사결정참여가 인정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학교직원들과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항에서는 5년 미만은 평균 3.00을 나타냈으며, 5~10년 미만은 평균 2.74, 10~15년 미만은 평균 2.51, 15년 이상은 1.89순으로 나타났다(p<0.001). 근무 연수가 적을수록 학교 직원들과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 회의 및 모임 등에 영양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현재 학교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도 근무년수가 적을수록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짧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생각되어진다(p<0.001).

‘조리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년수가 짧고 연령이 어린 영양사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조리종사원을 관리해야하므로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p<0.01).

6) 근무년수에 따른 인간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분석
인간관련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9>와 같다.

근무년수에 따른 인간관련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행정실과

<Table 9> Human stress according to the year of working

	≤ 5years	≤5-10 years	≤10-15 years	≥15 years	Average	F-value
	N=29	N=34	N=35	N=27	N=125	
Relations with superiors	2.21±0.73	2.26±0.96	2.17±0.66	1.85±0.91	2.14±0.83	1.447
Relations with general teachers	2.34±0.94	2.50±1.11	2.23±0.69	1.96±0.81	2.27±0.91	1.876
Relations with students	2.28±0.84	2.24±0.89	2.14±0.60	1.89±0.75	2.14±0.78	1.409
Relations with the administration Dept	2.00±0.66	2.24±0.96	2.14±0.77	1.67±0.68	2.03±0.80	2.964*
Conflicts with people provided with school meals	2.90±1.05	2.53±1.05	2.40±0.88	1.81±0.79	2.42±1.01	6.215**
Difficulties due to lack of students' perception	3.79±0.82	3.32±1.07	3.17±1.04	2.63±1.01	3.24±1.06	6.527***
Insufficient perception of general teachers and students' parents	3.69±0.93	3.09±1.19	2.89±0.87	2.48±1.09	3.04±1.10	6.839***
Leadership for managing cooking staffs	2.41±0.91	2.03±0.87	1.86±0.60	1.59±0.64	1.98±0.81	5.764**

¹⁾Mean±SD.

²⁾5-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p<0.05, **p<0.01, ***p<0.001

의 관계(p<0.05), 급식자들과의 갈등(p<0.01),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교육의 어려움(p<0.001), 일반 교사나 학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p<0.001), 조리원들 관리에서의 주도권에서 오는 스트레스(p<0.01)가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인간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Kim(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경력이 적을수록 대인관련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5년 미만인 영양사는 학생들이 영양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지도 및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평균 3.7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일반 교사나 학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평균 3.69로 나타났으며 조리원들의 관리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스트레스는 평균 2.41을 나타냈다.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일반 교사나 학부모들이 영양사를 대하는 태도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연령이 어려 학생들이 영양사의 지도를 잘 받지 않으며 또한 학부형들이나 교사들도 영양사의 나이를 짐작하여 교사나 관리직으로 보지 않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Song과 Choi(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의 연령이 어렸을 때 학부모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다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조리원관리에서도 나이가 많은 조리종사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이나 경력이 적건 많건 간에 급식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위를 높이고 일반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영양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영양사의 역할을 인지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7) 근무년수에 따른 개인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근무년수에 따른 개인관련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5년 미만의 경우 영양사가 '영양교사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평균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영양사에서 영양교사가 되는 과정에 시험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기인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그 다음으로는 '나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평균 3.24로 나타났다<Table 10>. 5~10년 미만의 영양사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5년 미만 영양사와 같은 영양교사화로 평균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건강&육체적 피로'로 평균 3.53으로 나타났다. 10~15년 미만의 영양사는 '여가시간 부족'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평균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일과 육아문제 병행'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평균 3.17로 그 다음을 나타냈다.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여가시간 부족'이 평균 3.3으로 가장 큰 점수를 나타냈으며 '건강&육체적 피로'가 평균 3.04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는 영양교사화에 대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반면 10년 이상에 경우에는 여가시간 부족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가사일 또는 육아문제로 오는 스트레스는 근무년수에 따라 유의적 차이(p<0.01)를 나타냈다. 5~1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혼을 하여 아이들이 아직 어린 경우 가사일과 육아문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로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라 볼 수 있다.

8) 근무년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학교 및 교육기관, 정부 등에서 대처해주길 바라는 문항에 대한 분석

근무년수에 따른 교육기관, 정부에서 대처해주시길 바라는 방법에 대한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이 문항은 근무년수에 상관없이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급여, 승진 등 안정된 고용문제 해결 문항'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은 평균 4.34, 5~10년 미만은 평균 4.50, 10~15년 미만은 평균 3.83, 15년 이상은 평균 3.59로 유의적 차이(p<0.001)가 나타났다. 근무년수가 오래된 영양사에 비해 10년 미만된 영양사들이 급여 및 승진 안정된 고용문제 해결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사 직무에 대한 방해 금지 법적 근거 마련'은 5년 미만의 영양사는 평균 4.17점, 5~10년 미만 4.56점,

<Table 10> Personal stress according to the year of working

	≤5 years	≤5-10 years	≤10-15 years	≥15 years	Average	F
	N=29	N=34	N=35	N=27	N=125	
My insufficient ability	3.24±0.74	3.03±0.76	2.86±0.91	2.67±0.83	2.95±0.83	2.576
Heal & physical fatigue	3.17±0.97	3.53±1.02	3.11±0.93	3.04±0.85	3.22±0.96	1.705
Housework & child caring problems	2.28±1.13	3.15±1.31	3.17±1.18	2.74±0.98	2.86±1.21	4.046**
Lack of spare time	3.00±1.17	3.44±1.08	3.26±1.09	3.30±1.24	3.26±1.14	0.801
Disadvantage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2.07±1.03	2.09±0.87	2.26±0.66	1.85±0.82	2.08±0.85	1.168
Nutrition teacher	3.79±0.94	3.74±1.05	3.09±1.10	2.74±1.20	3.35±1.15	6.719***

¹⁾Mean±SD.

²⁾5-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p<0.01, *p<0.001

<Table 11> Handling method of job stress on education system and government according to the year of working

	≤5 years	≤5-10 years	≤10-15 years	≥15 years
	N=29	N=34	N=35	N=27
Solutions to problems of payment, promotion, and stable employment	4.34±0.67 ^{1,2)}	4.50±0.75	3.83±0.86	3.59±1.08
Expan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4.00±0.76	4.41±0.61	3.97±0.57	3.96±0.85
Expansion of welfare and cultural facilities	4.24±0.74	4.29±0.76	3.86±0.60	4.04±0.85
Support of hobby activities	3.79±0.82	4.06±0.89	3.63±0.55	3.96±0.98
Modernization of facilities	4.21±0.86	4.65±0.49	4.20±0.58	4.30±0.91
Fair evaluation of tasks	4.17±0.81	4.53±0.62	4.20±0.53	4.04±0.85
Preparation for legal basis for preventing interference with the other's work	4.17±0.81	4.56±0.56	4.17±0.57	3.81±1.11

¹⁾Mean±SD.

²⁾5-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p<0.05, **p<0.01, ***p<0.001

10~15년 미만 4.17점, 15년 이상 3.81점으로 유의적 차이 (p<0.01)를 나타냈다. 10년 미만의 영양사들이 영양사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10년 이상의 영양사들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앞에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인 원하지 않는 업무 또는 업무 외적인 일 수행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10년 미만의 영양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 정부에서 대처해주시기 바라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직무방해금지법안 같이 교육기관이나 정부에서 대처해줄 수 있는 방법이 실행된다면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해석된다.

6.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별 상관관계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별 상관관계는 <Table 12>와 같이 환경관련 스트레스, 직무관련 스트레스, 조직관련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개인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스트레스와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r=0.547 (p<0.01), 환경관련 스트레스와 조직관련 스트레스는 r=0.350(p<0.01), 환경관련 스트레스와 인간관련 스트레스는 r=0.192(p<0.05), 환경관련 스트레스와 개인관련 스트레스는 r=0.445(p<0.01)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조직관련 스트레스는 r=0.550 (p<0.01),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인간관련 스트레스는 r=0.487(p<0.01),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개인관련 스트레스

<Table 12> Related of stress factor according to the year of job

	Job	Organization	Human	Personal
Envelopment	.547**	.350**	.192*	.445**
Job		.550**	.487**	.566**
Organization			.785**	.473**
personal				.454**

*p<0.05, **p<0.01

는 r=0.566(p<0.01)로 나타났으며 조직관련 스트레스와 인간관련 스트레스는 r=0.785(p<0.01), 조직관련 스트레스와 개인관련 스트레스는 r=0.473(p<0.01)로 나타났다. 인간관련 스트레스와 개인관련 스트레스는 r=0.454(p<0.01)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관련 스트레스 요인과 인간관련 스트레스 요인 사이에는 r=0.785(p<0.01)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인간관련 스트레스요인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근무년수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별 상관관계는 <Table 13>와 같이 환경관련 스트레스, 조직관련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대하여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스트레스는 r=-0.267 (p<0.01), 조직관련 스트레스는 r=-0.500(p<0.01), 인간

<Table 13> Related of stress factor according to the year of working

	Environment	Job	Organization	Human	Personal
The year of working	-.267**	-.109	-.500**	-.270**	-.100

**p<0.01

관계 스트레스는 $r=-0.270(p<0.01)$ 로 나타났다.

앞에 살펴본 <Table 13>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면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환경관련 스트레스, 조직관련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근무년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학교급식 영양사들은 근무년수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강원도 초중고 영양사 125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느끼고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근무년수별 차이에 따라 알아보았다. 또한 급식업무를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수행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연령은 31~40세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91명, 미혼이 34명으로 기혼이 훨씬 많았다. 근무년수로는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69명, 비정규직이 5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처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급식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직영급식이며, 급식인원은 400명 이하가 39명, 401~800명 미만 35명, 1200~1500명 미만 16명, 1500명 이상이 6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관련 스트레스, 환경관련 스트레스, 개인관련 스트레스, 조직관련 스트레스, 인간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관련스트레스는 근무년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조직관련 스트레스는 근무년수가 작을수록 조리원들과의 관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결정 및 직무인정 등 학교직원과의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지 않아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실과의 관계, 학생들의 인식부족, 일반 학부모와 교사, 조리원들과의 관리적인면 등의 여건이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인간관련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영양교사화, 건강, 육체적 피로 등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년수가 높을수록 가사일과 육아문제 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

무년수에 관계없이 식중독, 원하지 않는 업무, 권한에 따른 책임감, 조리종사원의 HACCP교육 및 감독에 대한 부담감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스트레스의 경우 근무년수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불안 및 고요형태불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근무년수에서는 경력이 짧은 영양사들이 급식인원에서는 급식인원이 많은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별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환경관련, 직무관련, 조직관련, 인간관련, 개인관련 스트레스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한가지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다른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직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인간관련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고문헌

강명희, 김은경. 1995. 급식실태조사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전략. 대한영양사회 1995년도 학교급식 질적 향상을 위한 심포지움. pp 7-47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2007-2011

김창순. 2000.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김혜경. 2007. 학교 급식영양사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직무분석 및 만족도 조사.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영양사회. 1996. 학교급식 영양사를 위한 지침서

이흥탁. 1995. 사회조사방법론. 법문사. 서울

한국통계학회. 1987. 통계용어사전. 자유아카데미. 서울

Choi ED. 2005.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General Hospital Nurses' Job Stress. Masters degree thesis. KyungHee University

Choi KB, Shin KJ, Lyu ES.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s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in Busan Area, Korean J. Food Cookery SCI. 25(5):619-631

Han JK, Kim HS. 2009. Comparative study of the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and job importance level of school nutrition teachers and school dietitians. Korean J. Food culture 24(5):525-532

Hwang HJ. 2005. Job satisfaction and stress of dietitians: dietitians of elementary schools in Daegu city. Masters degree thesis.

- Yeungnam University
- Hwang YH. 2005. A study on degree of occupational stress and countermeasure for Teacher Librarians. Masters degree thesis. Keimyung University
- Jang MR, Kim MH. 2003. Job Satisfaction of Dietitians between Elementary School and High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9(1):13-21
- Jeoung EJ. 2004. A study on perceived job stress and coping behaviors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cas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outh Gyeonggi province including Kwangju, Hanam and Incheon. Masters degree thesis. Suwon University
- J. gibson, J. M. Ivancevich. & J. H. Donnelly. 1982. Organization, 4th ed. Business Publication. Inc. New York. p 155
- Kang YS, Kam S, Lee SW, Chun BY, Yeh MH. 2001. Job 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in South Korean Doctors. Korean J Prev Med, 34(2):141-148
- Kim GY. 2001. Occupation stress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Methods to coping the stress. Masters degree thesis. Hong-ik University
- Kim HY. 2005. The study on the stress elements of make-up artist in the duty performance: Focus on the make-up artists in broadcasting companies. Masters degree thesis. Joongbu University
- Kim KM. 2005. A Study on Job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 sin the Public Kindergarten. Masters degree thesis. DanKook University
- Ko HS. 2002. The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Dietitians in School Foodservices (Focus on Daejeon and Chungnam of Dietitians in School Foodservices). Masters degree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 Kwon YS. 1999. A Job Analysis in Common Management Dietitian of School foodservice -Centering around Kyoung sang buk-do-.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5(2):182-193
- Park EJ. 1999. Job Achievement and Job Satisfaction of Dietitian In Primary School. Masters degree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Park SE. 2004. A Study on the job stressors of school librarians. Masters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 Smith, H. C. 1964.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Mcgrw-Hill Book Co. Mew York
- Song BS, Kim SH. 2002. An Empirical Study on the Job Stress. Tourism,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stitute sankyungnonjip, 17:145-173
- Song YS, Choi AK. 2001. An Exploratory Study on Kindergarten Teachers' job Stress with Personal Conflict Factors. Journal of Research, 28(2):97-110

2009년 12월 7일 신규논문접수, 12월 23일 수정논문접수, 12월 23일 채택